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코로나로 인한 전국 봉쇄가 해제된 이후’

지난 9월 하루 9,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봉쇄 명령이 내려져 지난 10월 15일까지 전국이 봉쇄 되었습니다. 이후 봉쇄는 해제 되었고 감염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전후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해서 자유롭게 지역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작은 규모(실내 10명, 실외 20명 이내)의 모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10월 중순부터 사역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안 동네 안에서만 지내던 가족들도 모처럼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생활의 반경을 넓혀 답답했던 몸도 마음도 풀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이스라엘 내 한인 직원과 미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또 요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간에서 그 일을 맡아 서로 연결하고 또 소통하는 일에 저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사역 이야기’

기도해주신 덕분에 유대인 사역팀(JCMT)을 위한 사역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작업들이 더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윤곽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사역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현재 우리의 위치와 부족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또 역량을 모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팀원들 간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보다 구체적인 사역의 그림을 담아 팀의 방향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과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이 민족과 현장 사역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저희 팀원들(정재석, 김진남, 김영화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 그리고 현장과 사역자들 가운데 찾아온 변화는 많은 동역자들이 이 땅을 떠나 고국으로 철수하거나 혹은 이른 안식년이라는 기회로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겠지만 이렇게 떠난 후 한동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저마다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길이 열려 현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자들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며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미국 직원 만남

이스라엘 내 한인과 미국 직원들의 첫만남과 모임이 은혜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구축

기도해주신 덕분에 팀 사역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겨울(우기) 나기 준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집안 누수를 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 활동 재개

코로나인한 전국 봉쇄가 해제된 이후 센터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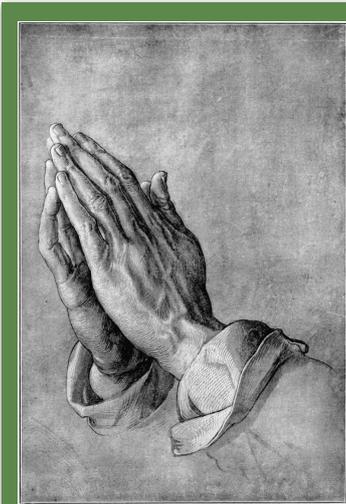
살롱!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 하시지요?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가까워 갑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맺음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오랜기간 코로나가 이어지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붙들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하는 '이른 비'를 맞으며 건조한 눈과 마음을 씻어내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밤에는 전기장판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요. 그래도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아이들과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홈스쿨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SOT(School Of Tomorrow) 교재가 거의 다해 내년치 새로운 교재를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포비도 세금도 너무 부담이 되던 차에 현장 동역자의 도움과 섬김으로 아이들의 교재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필요와 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12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찾아옵니다. 2020년 올 한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2021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연말 연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올 한해 저희를 위해 기도록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올 한해도 잘 지낼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 기도제목 」

- 1) 11월 28, 29일에 진행될 연합 전도 여행 간에 안전과 복음 전도에 귀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 2) 아이들 홈스쿨 교재를 받아볼 수 있게 하신것 감사하고 배달 과정에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 3) '다비드'의 왼쪽(눈과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가정들 모두 이 계절(우기)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 4) 이 시기에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현지인들(베두인, 노인센터, 지역교회(하나하르)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